

#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 '총력'

## 전북대, 하반기 청년TLO 육성사업 발대식 가져...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대상 취·창업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밝혔다.

청년 TLO 육성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6개월간 고용계약을 체결, 대학 우수 기술의 민간 이전을 돕고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올 하반기에 채용된 청년 TLO는 모두 48명.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지식재산권 교육을 비롯해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교육, 취·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6개월간 기술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북지역 우수기업 현지 인사담당자가 함께해 청년TLO 참여 인력의 사회진출을 위한 실천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NCS 전문강사 등을 초청해 개

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진로 컨설팅,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등 취업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조재영 산학협력단장은 "청년TLO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TLO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 하고 취·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청년TLO 연구원들을 대학 실험실 등에 배치하고 1인 1기술 배정을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는 등 청년TLO 육성사업이 우수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내일부터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내일부터 10일까지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번 2020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모두 2,730명을 선발한다. 2,689명을 선발했던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다소 늘었다. 수시모집 중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65명(31.7%),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865명(68.3%)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취진학사 홈페이지([jnhakapply.com](http://jnhakapply.com)))에서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저장하면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등을 통해 4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100%를 적용하며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이외 입상실적 면접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큰사람 전형 중 간호학과, 수의예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최초 합격자는 12월 10일 발표된다.

한편,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 시점에 완료되며, 전형료가 결제된 이후에는 전형유형 및 지원 모집단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사람(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총합합격자 포함)은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추석 명절 앞두고 호국원 찾아 순국선열 참배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추석을 앞둔 4일 일일 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이날 김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보직자들은 오전 11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대가 일일 호국원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교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해 결연 묘역을 정하고 참배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식목일을 앞두고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구성원들이 대거 호국원을 찾아 은행나무와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묘역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동원 총장은 "지역과 조국의 안보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은 지역과 함께하는 거점국립대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학이 앞장서 지역과 함께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받아

전북도교육청의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45개, 지자체 243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등 272개 등 총 5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센터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총 557개 기관이 그 평가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총점 92.3점(전체 평균 82.1점)을 받아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등록건

수와 충실성, 적접성 등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정보 수요를 파악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배치한 것도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북교육정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제공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전주대서 꿈돋움 영재교육마당 개최

전북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2019 꿈돋움 영재교육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잠재된 영재성을 일깨우고 영재교육원의 다양한 프로젝트 자료를 공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영재교육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북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마다 약 1,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프로그램은 크게 ▲영재수업 ▲

영재체험 ▲놀이마당 등으로 나뉘며, 영재수업은 총 13개 부스로 구성해 지역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수업을 30분으로 압축해 운영한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실 프로그램 당 사전 신청을 통해 4명, 현장접수 4명 등 모두 8명이 내로 참여 학생 수를 제한해 진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회 신청이 가능하다.

체험부스에서는 총 20개의 활동을 구성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체험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영재

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넘어 숨어 있는 영재성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희망하는 부스에서 현장 접수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놀이마당은 수학, 과학, 정보, 발명과 관련된 보드게임 체험마당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꿈돋움 영재교육마당은 학생 참여율과 현장 체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영재교육 우수 수업방법 공유를 통해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와 영재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및 영재교육 저변 확대를 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가 최근 김제시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비전대-김제시 보건소, 협약 체결

학생봉사활동·현장실습·취업정보 등 협력기로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 간호학부는 김제시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제시 보건소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통해 양 기관은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학생봉사활동 ▲현장실습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산학협력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은 김제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희 김제시 보건소장과 전주비전대학교 간호

학부 지역사회간호학 담당 우수목 교수, 서명희 교수, 박현선 겸임교수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우수목 교수는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으로 현장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제시 보건소는 1962년 개소해 현재 보건위생과(보건지소), 건강증진과(보건진료소), 치매재활과로 부서별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20학년도 전형일정 : 2019. 12. 9(월) ~ 2020. 1. 3(금)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 1가) ◆ 전화: (063)239-5350~5 (대표), (063)239-5300 (대표) ◆ 팩스: (063)239-5358

##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상산고등학교 입학설명회

<행사 장소 : 본교 강당>		
행사 일시	예약 일시	
9월 21일(토)	1회 : 13:30(1,000명)	9월 9일(월) 오전08:00 ~
	2회 : 15:30(1,000명)	
	3회 : 17:00(1,000명)	
10월 19일(토)	1회 : 13:30(1,000명)	10월 7일(월) 오전08:00 ~
	2회 : 15:30(1,000명)	

